

투데이 칼럼

장수군의 2덕(德), 황희와 백장

전 북북별자치도 동부 고원 산악지대에 자리한 장수군은 청정지역이자 금강의 발원지로, 수려한 산세에서 발원한 맑은 물이 흘러 사람들이 살기에 아주 좋은 자연환경을 지니고 있다.



최 훈 식 장수군수

조선 초기에는 이러한 천혜의 자연환경이 주요 인물의 유배지가 되는 요소가 되기도 했다. 장수군을 빛낸 인물로 2덕(德)으로 거러지는 백장선생과 황희선생은 장수로 유배 온 대표적인 인물이다. 장수군 2덕 중 우리에게 잘 알려진 방촌 황희선생은 정철을 대표하는 인물로 장수황씨가 배출한 위인이자, 고려말에서 조선초 문인으로 5명의 임금이(태조, 정종, 태종, 세종, 문종)를 모신 정승(정승기간 24년)인 황희선생은 본관인 장수로 유배되었고 후대의 기록에 의하면 유배 당시 2덕인 백장선생과의 교류가 있었다고 한다.

기개가 있고 침착하며 사람을 이끄는 힘이 있었다고 묘사되어 있다. 면모는 젊어서부터 학문을 좋아하여 역리학에 대한 이해도가 깊었다고 한다. 공손하고 은혜로우며 절의를 지킨 충신이었다는 기록도 확인되었다. 어릴 적 포은 정몽주의 문에서 수학하였으며 공민왕 때 성균관 진사에 합격하고 원나라 유학시절 제과에 장원급제한 후 고려로 돌아와 광정대부·이부전서·보문각 대제학 등의 중요 요직을 역임하기도 하였다. 이후 관직에서 물러나 강원도 원주의 치악산으로 이주하여 후학양성에 몰두하였다. 태조 이성계는 조선 건국 후 학덕을 경배한 백장선생을 조정으로 나오도록 불렀지만 이에 응하지 않자 왕명을 거역한 죄로 그를 충청남도 의령에 유배시켰다. 해미에서의 9년간의 귀양살이 후

이번에는 태조의 아들 태종(이방원)이 조정에 나오도록 특명을 내렸다. 백장선생이 다시금 거절하자 다음 유배지는 해미보다 훨씬 먼 장수군이 되었다. 1405년(태종5년), 백장선생의 나이 64세일 때이다. 당시 장계현으로 유배 온 백장선생은 지금의 장계면 금덕리 호덕마을에 터를 잡고 계남면 침곡리에서 학문연마와 후학양성에 매진하였다. 이때 후학 양성을 위해 지은 정자가 바로 계남면 방아재 옆의 정선정이다. 두 임금을 모실 수 없다는 굳은 신념하에 장수에 머문 13년간의 유배 생활 중 백장선생은 장수군 학문발전에 모든 열정을 쏟아낸 듯하다. 장수에 살던 많은 학자들이 교명인 백장선생을 찾아 배움을 청하였고 이를 통해 장수지역 학문이 발전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백장선생은 이후 1418년(세종즉위

년) 사망하였다. 백장선생의 묘소는 장계면 금덕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북특별자치도 기념물 제101호(1999.4.1.)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장수군의 '2덕'은 장수군을 빛낸 인물로 추앙되어 왔다. 하지만 백장선생은 그의 화려한 생애에 비하여 황희선생보다 덜 알려진 인물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에 백씨 성을 가진 사람의 본관은 수원백씨가 유일하다. 몇 해 전 기준으로 약 35만명의 백장선생의 후손이 생존해 있다. 우선 이들에게 선조인 백장선생의 훌륭한 업적을 알리고 그의 묘소인 장수를 찾을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할 듯하다. 공자는 '논어' 위정편에서 "백성을 올바르게 인도하는 데 정치적 술수로써 하고 질서 잡는 것을 형벌로 한다면 백성은 모면하려고만 하지 부끄러움을 모른다. 인도하기를 덕으로써 하고 백성을 바르게 하는 데 예를 가지고 한다면 백성은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바로잡힐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다. 어지러운 세태 속에서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필연이를 가리키는 '덕'을 시사하는 장수군의 2덕 위인들이 유독 빛나는 듯하다. 장수군의 '2덕', 백장선생과 황희선생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시대정신이 되어야 할 것이다.

사설

주차장 조성 효율성

전주시가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예코시티내 공영주차장을 확충한 것과 관련, 1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면서 행정 효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조성한 1면당 1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 것이다. 확보된 주차면수 역시 적어 예코시티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주시 송천동 예코시티 내 주8·주13주차장이 최근 준공됐다. 이 주차장들은 이번 달부터 전주시설공단 위탁 절차와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10월부터는 유료로 전환된다. 주8주차장은 59면, 주13주차장은 28면 규모로, 시는 각각 57억 원과 26억 원을 들여 해당 부지의 토지를 매입했다. 이후 이 두 곳에 6억 원과 4억 원 등 총 10억 원을 추가 투입해 주차장 바닥 포장, 주차관제시스템(차단기) 설치 등 주차장 조성공사를 마쳤다.

결국 올해 시는 예코시티 상가지역 내에 공영 주차 공간 87면을 확충하기 위해 100억 원에 가까운 비용을 투입한 셈이다. 전주 타 지역 주차장 조성 한 면당 당게는 수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인 것과 비교해도 예코시티의 경우 차량 한 대를 주차하기 위한 장소 마련을 위해 1억 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돼 예산 집행 효율성이 떨어진 다. 시민들은 예코시티 내 주차 공간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면 서도 공영주차장 조성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 부분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곳은 연말 정식 운영을 앞두고 임시 무료 개방을 있어서 인근 상가를 찾은 방문객들의 차량이 30여 대가 주차돼 만차인 상태였다. 10여 분 사이에 차량 4~5대가 이곳에 주차를 하려고 들어왔다가 빈 자리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바로 빠져 나갔다.

완주군노인회 갑질 논란

최근 전북 도내 어느 일선 노인회에서 갑질 논란이 불거져 논란이 일었다. 갑질 당사자로 지목된 사람은 결국 사표 수리가 결정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다. 갑질 논란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도내 대한노인회 어느 군지회 사무국장이 직원 갑질 등의 이유로 해고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해당 노인회는 지난해 1월 공개 채용한 사무국장이 직원들에게 부당한 근무지시와 직원 괴롭힘, 근무태만 등의 잘못을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 자진 사퇴를 종용했다. 그러나 당사자가 이를 거부해 지난달 8일 2차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임을 의결했다. 노인회에 따르면 그는 회장의 결례도 없이 직원들에게 1달간 야간 근무를 강요하는 등 부당한 업무지시와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직원이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9명의 직원 중 3명이 지난 5월 사표를 제출하면서 드러났다. 노인회는 사무국장에 대해 1차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고를 결정했다. 하지만 당사자에게 비위에 대한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북노동사무소에서 징계 무효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2차 인사위원회를 열어 다시 해고를 의결하고 1개월 해고 예고기간을 거쳐 지난 8일 해고 처리됐다. 현재 1만 5000명의 회원을 둔 해당 군 노인회는 노인회 산하 조직 관리와 지도, 노인일자릿 및 사회활동지원, 이통복지관 운영, 경로당 순회 교육, 노인 의날 행사 주최 등 노인권의 신장을 위한 여러 활동을 벌이고 있는 군내 최대 사회단체다. 사무국장은 실무 총책임을 맡는 자리다. 완주군노인회는 임기 2년의 사무국장이 해고 처리되면서 이튿 시일 내 후임을 공개 모집할 계획이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팀 윌즈 "부통령 후보 지명 수락, 인생 최대의 영광"



미 민주당 대선 부통령 후보 팀 윌즈 미네소타 주지사가 21일(현지시각)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DNC) 3일 차 연사로 나서 연설하고 있다. 윌즈 주지사는 "미국 부통령 후보 지명을 수락하는 것은 내 인생 최대의 영광"이라며 부통령 후보 지명을 수락했다.

일본 116세 할머니, 현존 세계 최고령자에 등극



올해 116세인 일본의 이토오카 토미코 할머니가 현존 세계 최고령자 기네스 타이틀을 갖게 됐다. 미국 노인학연구단체는 세계 최고령자였던 스페인의 마리아 브라나스 모레라가 117세를 일기로 지난 20일 세상을 떠나면서 1908년 5월 23일생인 일본의 이토오카 토미코가 세계 최고령 기록을 갖게 됐다고 23일(현지시각) 밝혔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